경산암소 비육 사양관리

1. 비육유형별 사양관리방법

암소비육은 비육유형별(비육 개시시 암소의 상태에 따라)로 임신, 포유 및 이유 후 비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, 농가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.

표 1. 한우 경산암소 비육유형별 발육특성 (축산원, 2010~2012)

구 분	포유	이유	임신
평균연령(년)	7.4±2.6	4.6±1.5	7.1±0.6
개시시 체중(kg)	498.2±54.6	452.6±29.5	510±49.3
종료시 체중(kg)	599.6±65.6	593.5±52.4	658.4±50.0
일당증체량(kg/일)	0.36±0.12	0.50±0.16	0.47±0.09

임신 및 포유 중 비육은 우사공간이 부족하거나, 나이가 많은 암소의 경우 육질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출하하고자 할 때 적합하며, 사육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할 때 적절하다. 사료에너지가 태아 및 유생산에 이용되기 때문에 어미의 사료이용율은 낮고 포유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이유 전 비육효과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다. 단지 이유 후 본격적인 비육을 위한 개시체중 및 사료섭취량 향상으로 출하시기가 빨라지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.

표 2. 한우 경산암소 비육유형별 사료이용성 (축산원, 2010~2012)

구 분	포유	이유	임신
사료섭취량			
농후사료	8.48±0.99	8.28±0.79	8.48±0.65
볏짚	2.76±1.20	2.80±1.16	3.36±0.94
건물섭취량	9.89±0.75	9.74±0.73	10.42±0.76
사료요구율(kg/증체 kg)	27.47	19.48	22.17

임신 중 비육은 임신초기(임신 5개월 이전) 보다 후기(임신 7개월)에 비육을 개시하는 것이 좋다. 초기 비육은 난산 발생률을 증가시키고, 분만 후 체중저하가 높아 비육효과에 있어 유리한 점이 없다. 또한 임신 중 비육방법은 이유를 기준으로 비육전기 5개월(임신 7개월～이유) 및 후기 5개월(이유 후～출하 시)로 나누어 최소 10개월 이상 비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포유 중 비육은 분만 후 비육을 개시하여 이유 후 최대한 짧은 기간(5～8개월) 내 출하 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. 임신 중 비육보다는 출하시기가 늦지만, 난산 등의 위험부담이 적고 사료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. 비육초기 3개월(분만～이유) 및 후기 5개월(이유～출하 시)로 나누어 최소 8개월 이상 비육하는 것이 유리하다. 한우 경산암소의 육질향상을 원한다면 임신 및 포유 중 비육 보다 이유 후 비육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.

표 3. 한우 경산암소 비육유형별 도체 육량특성 (축산원, 2010~2012)

구 분	포유	이유	임신
육량특성			
도체중(㎏)	338.8±36.7	340.1±31.9	359.2±32.2
등지방두께(㎜)	12.8±3.7	10.5±4.3	12.7±3.5
등심단면적(㎠)	75.1±82.2	82.2±5.8	83.8±4.4
육량지수	65.0±2.6	67.3±3.0	65.7±2.8
육량등급(A:B:C, %)	20:70:10	60:30:10	50:42:8
육질특성			
근내지방도	2.7±1.1	3.5±1.8	3.4±1.2
육색	5.6±0.5	5.4±0.5	5.3±0.5
지방색	4.4±1.3	4.1±1.0	3.7±0.8
조직감	1.9±0.3	1.9±0.3	1.9±0.3
성숙도	8.2±1.1	6.9±1.8	8.6±0.8
육질등급(1^{++}:1^{+}:1:2:3, %)	0:0:30:60:10	0:20:30:40:10	0:8:50:42:0

2. 질병 및 유의사항

경산암소 비육 시 발생되는 질병에 유의하여 관리 되어야 하는데, 우선 나이가 많고 개체는 급성 고창증에 유의하여 한다. 급성 고창증은 배합사료 다급 및 과비가 주요 원인으로 기립 불능이 반추위 내 가스를 배출하지 못해 폐사되는 경우이다. 기립이 원활하지 못한 개체는 따로 관리하며 배합사료 섭취량을 조절하고,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출하 하는 것이 좋다.

고창증(기립불능)

질탈

산차 및 나이가 많은 암소의 경우 비육이 진행됨에 따라 질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, 보통 앉아 있을 때 질점막이 외부에 노출되었다가 기립 시 다시 들어가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된다. 외부 노출 시 질 점막이 오염되면서 감염부위가 점점 커지게 된다. 일반적으로 외음부를 봉합하여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,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비육하여 출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.

그 밖에 발정 시 골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 보수와 비육초기 갑작스런 배합사료 다급에 따른 대사성 질병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.